

규칙: 구체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위한 철근

글: 젠 파커

35 년 전에 한 지혜로운 케푸찬 수사님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이상(*The Ideals of St. Francis of Assisi*)란 책 한권을 내게 주어주시며 읽기를 권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게 하나의 중심축이 되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앉아있었던 바깥의 나무 계단과 이 책을 열고 몇시간이고 읽었던 그 시간을 그릴 수 있습니다. 밤이 찾아오며 불던 서늘한 바람과 현관의 전등빛에 얼마나 감사했던지를 기억합니다. 나는 그 책을 덮고 싶지 않았었지요. 각 장은 내 심장이 기쁨에 찬 "네!" 하는 노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처음으로 프란치스코 영성을 공부한 책입니다. 여기서 나는 무엇이 프란치스코 성인을 구별되게 하고, 어떤 것이 그의 개성, 성격, 영혼, 영성, 그리고 천재적인 이상들을 만들어나가게 했는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그 이상들을 하나하나씩 탐구해나갔습니다: " 프란치스코와 복음", " 프란치스코와 그리스도", "프란치스코와 성체", "프란치스코와 교회", "프란치스코와 가난에 대한 그의 사랑", 각장을 이어가면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생활, 겸손, 순종, 단순함, 정결, 보속, 기쁨, 형제애, 자선, 평화, 사도직, 과학(네, 과학이요!), 경건함과 자연에 관해 탐구해 나갔습니다. 이 때가 내가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이상들을 포함한 규칙이라는 것을 발견한 제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나는 이 규칙을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상을 살아가고 발전시켜가는 방법의 하나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서원을 하고 하루하루 앞으로 나아가면서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규칙은 내 삶의 철근이 되었습니다. 철근이라구요?

나에게 철근의 중요성을 소개해준 것은 칼 프리윗이었습니다. 칼은 훌륭한 친구였으며, 같은 성당 교우였고, 우리 새 성당의 공사를 감독하는 것을 도와준 엔지니어이기도 했습니다. 어느날 새롭게 부어진 건물의 토대 구경하는 동안 칼은 철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철근은 쇠로 만들어진 막대나 철사의 그물망으로 구조물의 항장력을 높이는데 쓰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철근은 부러지기 직전에 견뎌낼수 있는 압박의 양을 크게 증진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죠, "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가 삶에서 의지할 수 있는 가치는 철근같은 거야 -마치 철이 구조물에게 힘을 더해주는 것처럼". 그 이미지가 뇌리에 박혔습니다.



철근은 규칙이 내 삶에서 활동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나타내는 좋은 이미지입니다. 우리 재속회의 규칙안에서 내포되어있는 이상들은 우리 존재 가운데에서 깊이 들어싸여있는 마치 철근과도 같습니다. 규칙은 나를 강하게 하고,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 나를 지켜내고, 계속 강하게 진실한 나의 소명안에 머무르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심한 때에 말이죠. 이 프란치스코적 보강 철근은 나를 안내해주고 내 행동의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사진: 강화된 콘크리트 기둥이 있습니다. 철근으로 둘러쳐진 전과 후 구조물 모습입니다.

이 철근의 비유가 몇달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콘크리트처럼 견고해야만 하는가에 관한 설교를 듣고 다시 내 맘속에 살아났습니다. 교황님은 마태오 복음 7:21-27 절의 말씀을 들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것"에 대한 우선적인 행위를 깊이 고찰했습니다.

" 말하는 것도 하나의 믿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 반쪽은 깊이 없이 피상적일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합니다만, 행동은 그와같지 않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누군가가 자신을 행동없이 그저 말로만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일컫는 것일 뿐이죠" 반대로 **"예수님의 제안은 구체적이고 견고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다가와 조언을 청했을때 그것은 항상 어떤 구체적인 것을 얻어내기 위함입니다..
자비로운 행위는 항상 구체적이고 견고합니다.

또다른 비교: 바위와 모래. 모래는 말의 결과물로서 토대가 없는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주님은 바위입니다, " 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자주 그를 믿는 사람이 성공하지는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숨겨져 있으나 그분은 **단단하고 견고합니다**. 그분은 희망을 말이나, 허영심이나, 자만심, 삶의 수명이 짧은 힘에 두지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주님 안에 있다고 교황님은 강조하십니다. "크리스찬 삶의 견고한 면은 우리를 전진하게 만들고 하느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성스러운 견고한 바위위에 짓게 합니다- 겉모습이나, 허영심, 자만심, 권고등이 아닌.. 진실위에."

세번째는 덧없음과 겸손입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성모 마리아 송가를 인용하셨습니다. " **주님께서서는 매일의 명확함 안에서 겸손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삶을 허영과 자만안에 지어낸 교만한 자들을 끌어내리십니다.**"

프란치스코 재속회원은 당연히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견고한 삶의 귀감이 되어야합니다 - 예수님이라는 토대 위에 단단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삶. 우리의 규칙의 철근이 우리의 노력을 강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 있습니다. 우리의 클라라 성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 **단단히 지키십시오**"

우리 규칙의 40 주년기념해를 맞으면서 기념행사가 단지 우리의 규칙을 축하하는데 그치지 않고 프란치스코 재속회원으로서의 삶도 기념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단호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를 축하하지 않는다면 규칙을 축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그리고 매일 견고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념하고 규칙이 있음에 감사하고 규칙이 우리의 철근과 같은 존재라는 것에 감사합시다.